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ANATOMY OF A SOLDIER

가제 : 한 군인의 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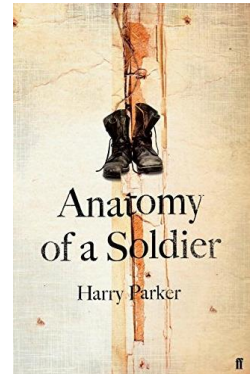
저자 : Harry Parker

출판사: Faber & Faber

발행일: 2016년 2월 25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소설/전쟁소설



- *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미국과 판권 계약 체결
- * 전쟁의 참상과 애국심, 영웅주의, 휴머니즘의 본질을 45가지 ‘물건’의 시각에서 바라본 이야기
- * “마음을 사로 잡는,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데뷔 소설 ... 눈을 뗄 수 없는 책” - 북리스트
- * “부상당한 군인의 회복 과정을 다룬 글 중에서, 가장 친밀한 시선으로 그 과정을 상세히 드러낸 이야기” - 「월 스트리트 저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는 셀 수 없이 많은 형태와 내용의 글로 그려졌다. 작가의 데뷔 소설인 이 책은 한 소대를 이끌던 영국군 소속 육군대령이 중동의 어느 국가에서 사제폭탄에 두 다리를 잃는 끔찍한 사고를 이야기한다. 이와 함께, 전쟁터가 한때는 따뜻한 고향이었던 두 어린 소년이 서로 믿는 집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이 되어버리는 잔인한 현실을 나란히 고발한다. 그런데 이 소설은 다른 전쟁소설들과 특별한 차이가 있다. 비극적인 두 이야기를 들려주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마흔 다섯 개의 ‘무생물’이기 때문이다. 대령의 허벅지에 묶여 있던 총, 가게 한 켠에 있다가 중동의 한 청년에게 팔려가는 비료 포대, 자전거, 맥주잔, 군화, 헬멧, 드론, 심지어 하늘에서 떨어진 눈송이까지, 작가는 주인공들의 바로 곁에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함께 했던 다양한 물건들이 일인칭 시점에서 직접 목격한 장면을 묘사하는 독특한 방식을 택했다. 이처럼 화자가 수십 개임에도 불구하고, 물건들이 전하는 짙막하고 사실적인 목격담은 지옥 같은 전쟁터의 한 가운데 놓인 인간의 감정을 더 없이 선명하게 그린다.

BA5799라는 암호 같은 기호가 새겨진 총은 어느 군인과 함께 공중으로 날아 올랐다가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다른 물건들을 통해, 그 기호는 톰 반스 중령의 번호였음이 밝혀진다. 중동의 한 마을에 배치된 반스 중령은 작전을 펼치던 중, 과격 단체가 몰래 심어둔 사제폭탄이 터지면서 두 다리가 큰 부상을 입었다. 소설은 그의 다리에 생긴 상처에서 자라기 시작한 곰팡이를 비롯해 결국 절단이 결정되고 수술에 사용된 의료용 톱, 텅 비어버린 다리의 자리를 새로 채우게 된 의족, 휠체어의 시선으로 폭발 직후부터 회복기에 접어들기까지, 반스 중령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세밀하게 전한다. 한편, 그의 다리를 날려버린 폭탄은 반스 중령이 배치된 지역에서 나고 자란 파리던과 라티프라는 청년의 이야기와 연결된다. 꼬마 시절부터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함께 놀던 두 사내아이는 외국에서 군부대가 대거 유입되고, 총성이 단 하루도 끊이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면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다. 조국에 평화를 회복하겠다는 마음 하나만은 일치했지만, 그 목표를 위한 방법이 일치하지 못한 것이다. 서로를 “이단”으로 치부하는 두 집단에 각각 들어간 파리던과 라티프는 형제보다 진했던 우정을 버려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아버지를 가장 먼저 없애버려야 할 적으로 여기며 그를 암살하기 위해 특별 훈련을 받는 지경에 이른다. 이들과 함께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갈등의 양쪽에서 마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겁에 질려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군인 출신인 저자는 군인과 전쟁터의 일상을 지금껏 시도했던 그 누구보다 생생하고 명확하게 전하면서, 이처럼 아무 희망도 없고 인간성이 말살된 잔혹한 삶 속에서도 인간이 지닌 엄청난 힘, 불굴의 의지가 빚어내는 새로운 희망과 인간성의 씨앗을 보여준다.

<저자 소개>

해리 파커(Harry Parker)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공부하고 스물세 살에 영국군에 입대했다. 2007년에는 이라크로, 2009년에는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되어 복무를 마쳤다. 현재는 런던에 살면서 로열 드로잉 스쿨에서 미술을 공부하며 화가 겸 소설가로 활동 중이다.

제목 : BLACK RAIN
가제 : 블랙 레인
저자 : Matthew B.J Delaney
출판사: 47North
발행일: 2016년 9월 1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소설/공상과학소설



★ 2004년 세계 호러 협회 상(International Horror Guild Award) 수상작가의 신작

★ 머지 않은 미래, 인간이 만든 유전공학 기술과 오만의 결과를 그린 공상과학 스릴러

생명공학 기술이 식량난을 해결해줄 마지막 열쇠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마음먹은 대로 만들어대는 대상이 농작물이나 동물에만 그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인간이 인간마저 원하는 만큼 만들어낸다면? 금융권에서 일하다가 9·11 테러 이후 뉴욕에서 경찰로 일하기 시작한 독특한 경력의 작가는 그 섬뜩한 전제를 가까운 미래를 무대로 그린다. 2003년에 발표한 데뷔소설 『Jinn』으로 이듬해 세계 호러 협회 상을 수상하며 소설가로서의 재능을 인정 받은 작가답게 이번 신작 또한 특유의 상상력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성을 더해 긴장감 넘치는 공상과학 소설을 완성했다.

유전자를 조작하고 변형할 수 있는 기술이 크게 발전한 시대, 인간은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직접 해온 일들을 대신할 인공 인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합성체’라는 의미로 일명 ‘신세이트’라 불리는 이 존재들은 가사일이나 전투군인처럼 위험한 일은 물론 귀찮고 단순한 일은 모두 도맡아 했다. 신세이트는 특별한 기술이 적용되어 진짜 인간처럼 영혼이나 감성이 없는 로봇 같은 존재로 알려졌다. 그런 이유로 인간에게는 간편한 소모품처럼 여겨지고, 필요하면 마음대로 사서 쓰다가 버리는 장난감 취급을 받기 일쑤였다. 마치 닭이나 개, 소가 싸움을 벌이게 하고 지켜보던 것처럼, 신세이트끼리 검투사 시합을 치르게 하고 그 모습을 즐겁게 관람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 그러나 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존재 덕분에 인간은 역사상 유래 없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즐길 수 있었기에, 그런 문제들은 그리 심각하게 다루어지지도 않았다. 어느 날, 신세이트를 개발한 거대 기업에서 일하던 수석 과학자가 의문의 살인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한때는 불치병이라 여겨졌던 질병도 물리치고 유전적인 질환까지 말끔하게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여 막대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제니코는 독보적인 유전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신세이트를 만들어냈다. 이 거대 기업에서 DNA 재조합 나노기술을 발휘하고 있는 분자 유전학자 마틴 레이놀즈는 아내 벤티와 함께 괴짜 친구 브루스 리빙스턴이 연 파티에 참석한다. 대저택을 보유한 리빙스턴은 이 가장무도회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 숨바꼭질을 시작했다. 절반에게 20분간 숨는 시간을 주고, 술래 역할을 맡은 나머지 절반이 수색을 시작해서 끝까지 들키지

않으면 6개월간 무상으로 ‘가사일 담당 신세이트’를 대여해주는 파격적인 상품이 주어진다. 집주인의 통쾌한 선언으로 게임은 시작했다. 레이놀즈 부부는 리빙스톤의 서재에 거울 문과 연결된 비밀의 방에 몰래 숨지만, 게임이 시작된 직후부터 따라다니던 남자가 부부를 뒤쫓아왔다. 처음에는 집주인이 워낙 엉뚱한 성격이라 겁을 주려고 저런 무서운 존재까지 심어놓았나, 부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의 몸과 그가 지나간 자리에 흘러내린 빨간 액체는 가짜가 아니었다. 진짜 살아 있는 사람이 흘린 피가 확실했다. 얼마 후, 부부는 잔인하게 살해당한 모습으로 발견되지만 범인이 누구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런데 뜻밖의 인물이 이 끔찍한 살인의 범인으로 지목된다. 바로 제니코 회장의 아들, 잭 색스턴이었다.

하루 아침에 살인자로 몰린 잭은 세계 일류 기업을 물려 받을 인물로 거론되던 촉망 받는 인물이었다. 아버지가 일구어놓은 업적 덕분에 넘쳐나는 재산을 마음대로 써 가며 즐겁게 살던 그에게 살인자라는 누명이 씌워진 후, 그 순탄했던 삶은 하루 아침에 박살 나고 말았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비밀이 혼란스러운 잭 앞에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하고, 잭은 이 모든 음모 뒤에 숨어 있던 인물의 실체를 알게 된다. 바로 이복형, 필립 색스턴이었다.

자신과 달리 아버지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잭을 늘 시기했던 필립은 원래 위험한 인물이었다. 밤마다 파티를 벌이고 코카인에 취해 사는 필립은 제니코의 두 아들 중 한 명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금융권에서 위험한 거래를 일삼았다. 그가 사고 파는 대상은 주식이나 사업체가 아닌, 만들어진 인공 인간 신세이트였다. 그는 조금씩 변형된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신세이트를 견본품으로 만들어 거래하는 일을 지속하면서 언젠가는 잭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자신이 꿰차는 날이 오기만을 꿈꿨다. 그 욕망은 이복 동생을 살인자로 몰고 가는 사태로 이어지고, 아내까지 살해당하고 비참한 처지가 된 잭은 감정과 영혼이 없다고 알려진 신세이트의 실체와 레이놀즈 부부의 죽음 그 이면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된다.

신세이트로 이루어진 거대 집단의 탄생, 이들이 인간에게 겨누는 복수의 칼날, 그리고 오직 인간만 감염되고 합성 인간만 안전한 무서운 전염병 ‘블랙 레인’의 등장까지, 인간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진다.

<저자 소개>

매튜 B.J. 딜라니(Matthew B.J. Delaney)는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공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금융 분야에서 일하던 그는 9·11 테러 이후 고향인 매사추세츠를 떠나 뉴욕으로 건너와 경찰이 되었고, 12년째 정보부 소속으로 맨해튼과 브롱크스 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2003년 발표한 데뷔 소설 『Jinn』은 터치스톤 픽처스가 영화로 제작하기로 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고 「피플」에서 ‘흡입력 있는 도서(Page-Turner of the Week)’로 소개됐다.

제목 : AFTER DISASTERS

가제 : 재앙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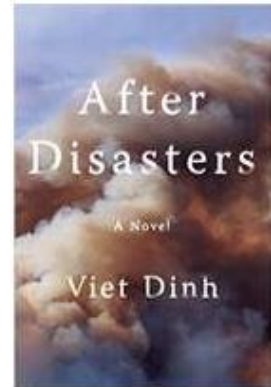
저자 : Viet Dinh

출판사: Little A

발행일: 2016년 9월 1일

분량 : 282쪽

장르 : 소설/재난소설



- * “2016년 하반기 가장 기대되는 책” – 온라인 문학 매거진 「The Millions」
- * 버즈피드(Buzzfeed) ‘올 가을 꼭 읽어야 할 놀라운 신작 21편’, 나일론(Nylon) ‘9월에 읽어야 할 열 세 권의 책’으로 선정
- * “올해 주요 상을 거머쥔 책, 책장에 반드시 추가해야 하는 대단한 데뷔작” – 북리스트
- * 지진과 마주한 네 명의 구조대원, 오 헨리 상 수상 작가가 그린 재난의 참상과 인간의 유대

인도 구자라트 지역에서 진도 6.5 규모의 대형 지진이 일어나 피해자가 속출한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뿌옇게 떠 다니는 먼지를 남기고 폭삭 주저앉은 건물 잔해 밑에 깔려버린 사람들과 길 거리에 나앉은 이재민들의 소식이 전세계로 번지자 국제 재난구조대가 무너진 마을로 속속 모여들기 시작한다. 특별한 사명과 목표, 자신만의 아픔과 씻어내지 못한 기억을 안고 다른 생명을 구하러 모여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작가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위험한 곳으로 자진해서 뛰어드는 이들이 겪는 현실을 날카롭게 조명하고 그 귀중한 노력과 도전의 가치를 보여준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다가 미국 국제개발처의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재난구조팀의 일원이 된 테드, 보스니아 내전 지역에서 얻은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테드의 동료 대원 피오토르,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세상에 증명해 보이는 일에 혈안이 된 영국의 젊은 소방관 앤디, 텔리에서 에이즈 클리닉을 운영하는 인도인 의사 데브, 지진 피해 현장에 도착한 네 사람의 삶은 물자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무너진 마을처럼 더욱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고,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기억과 아픔이 여진처럼 덮쳐온다.

테드가 구조팀을 이끄는 로레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건 1월 말의 어느 저녁, 뉴욕이 새하얀 눈으로 덮인 날이었다. 그는 저 멀리 인도를 덮친 거대한 재난의 전조를 몸으로 예감했다. 아무 이유 없이 발바닥이 불이 붙은 것처럼 따끔한 느낌이 찾아와 불안해하던 테드는 1년 전인 1999년의 마지막 날, 세기말의 멸망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미국 전체에 일으킨 혼란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가 재난 구조대원이 된 것은 2년 전 인도를 다녀와서부터였다. 미국에 돌아온 테드는 바로 국제개발처에 들어가 1년간 교육을 받고 뉴욕에서 로레인, 피오토르와 함께 추가 교육을 받았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물과 음식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국경을 꼭 넘어가야 할 일이 있을 때 무장한 군인들을 어떻게 설득하는지, 반란 세력을 대하는 법, 저개발 국가의 정부관료들

을 대하는 방법까지 가장 위험한 곳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온갖 기술을 다 배운 셈이다. 그리고 다시 그 인도 땅으로 떠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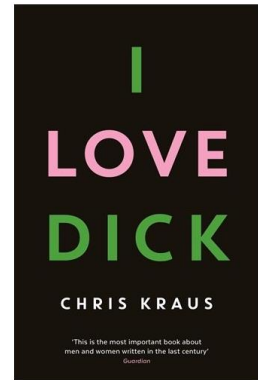
델리에서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해온 데브도 재난 현장으로 떠난다. 얼마 전 결혼을 하고 빠듯한 살림을 꾸리느라 애써온 그는 아내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을 안고 힘겹게 살던 중, 비극적인 지진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다. 영국에서 날아온 혈기왕성한 소방관 앤디도 먼지투성이 현장에 투입되어 무너진 콘크리트 밑에 깔린 생존자들을 찾아 나서지만 곧 그 일은 기적을 손꼽아 기대해야 하는 일임을 깨닫는다. 테드와 함께 인도 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피오프르는 전투지역에서 보낸 시간에 발목이 잡힌 채 살고 있다. 원래 전쟁 지역 사람들을 돕는 것이 그의 일이었지만, 고통스러운 기억을 떨치지 못해 최근 재난 구조대로 자리를 옮겼다. 마지막으로 일했던 보스니아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나를 만나 가정을 꾸린 그는 자신처럼 큰 아픔을 지닌 채 살아가는 라나와 함께 서로를 다독이며 살아간다. 테드는 두 번째 인도 방문이 첫 방문 때 가슴에 새겨진 아픈 기억을 덮어주기를 기대하지만, 그 기대와 정반대로 과거의 악몽이 점점 되살아나는 상황에 처한다.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구조 업무에 허덕이던 이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소리 없이 아우성치는 과거의 기억과 맞서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틴다. 소설은 지진 현장에 모여든 이들이 왜 이 험난한 곳에 제 발로 찾아와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게 되었는지, 각자의 사연을 조금씩 들려주고, 선의로 행하는 일들이 현실에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 내는지, 냉혹한 현실의 단면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혼란을 잠재우러 찾아온 네 사람은 혼돈의 도시 한복판에서 폭력과 위협에 내몰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삶과 목숨을 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존재하는 인간성의 뿌리를 찾아 설득력 있게 전하며 독자를 낯선 세상에 충분히 빠져들 수 있도록 이끄는 스토리의 힘이 살아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비에트 딘(Viet Dinh)은 베트남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랐다. 존스홉킨스 대학교와 휴스턴 대학에서 공부한 후 델라웨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Zoetrope: All-Story」, 「Witness」, 「Fence」, 「Five Points」, 「Chicago Review」 등 다양한 매체에 글을 발표해왔으며 오 헨리 상(O. Henry Prize)을 수상했다.

제목 : I LOVE DICK
가제 : 사랑해요 딕
저자 : Chris Kraus
출판사: Serpent's Tail
발행일: 2016년 5월 5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소설/페미니스트소설



- * 1997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 된 후 현재까지 20년간 페미니즘 소설로 추앙 받아 온 도서
- * 영국,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판권 계약 체결
- * “수동성이나 부적절성과는 거리가 먼 무언가를 향한 욕망을 탐구한 이야기이자, 사랑을 향한 무모한 질주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대신 오히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행위가 되는 이야기” - 「뉴욕 타임스」

실패한 영화감독, 크리스 크라우스는 남편과 함께 딕이라는 남자와 저녁식사를 했다. 뉴욕의 한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크리스의 남편 실비에르는 안식년을 보내던 중 문화비평가인 딕과 알게 되었다. 호주에 살다가 최근 로스앤젤레스로 건너 왔다는 딕은 저녁을 먹는 내내 크리스의 남편과 포스트모던 비평이론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크리스는 잘 모르는 이야기라 조용히 식사만 하려고 했지만,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다. 딕이 자꾸만 자신과 눈을 마주치려 한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조용한 눈길은 크리스를 긴장하게 하고, 이상한 에너지를 느끼게 만들었다. 크리스가 알쏭달쏭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을 때, 딕은 부부를 식당과 가까운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폭설로 길이 험하니 하룻밤 지내고 가라는 것이다.

크리스는 딕 앞에서 웬지 남편 있는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실비에르를 딕이 운전하는 차에 타라고 설득하고는 홀로 식사 내내 느낀 묘한 기분을 되새기며 차를 몰고 딕의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밤 늦도록 대화가 오가는 동안 크리스는 딕이 자신을 유혹한다고 확신했다. 딕의 입에서 술술 흘러나오는 어렵고 유식한 이야기들도 모두 크리스 자신처럼, 헤어날 수 없는 외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다음 날, 집주인은 아침 일찍 어딘가로 가버렸다. 텅 빈 집에서 잠을 깬 부부는 얼른 집 밖으로 나왔지만, 크리스는 웬지 분한 마음이 들었다. 어젯밤 분명히 딕과의 사이에 뭔가가 오간 것 같은데, 눈뜨니 혼자 사라진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미 수년 째 섹스 없이, 부부라기보다 절친한 친구로 지내온 남편에게 크리스는 이 속상한 마음을 전부 털어놓았다. 딕은 하루 뒤, 전화를 걸어 그날 밤 사라진 연유를 설명하고는 다른 약속 없이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크리스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속에서 오랫동안 잠자던 무언가가 깨어난 기분, 마침내 7년여 만에 다시 느낀 성적 흥분과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았던 확신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크리스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실비에르는 아내가 생기를 되찾은 것만으로 행복한 나머지, 크리스의 모든 울분과 단 한 번의 만남, 단 한 번의 전화통

화의 의미를 며칠째 수없이 분석하고 곱씹는 이야기를 다 받아주었다. 아내의 끓어오르는 감정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실비에르는 딕에게 편지를 써보라고 제안한다. 아내가 반한 남자에게 연애 편지를 써보라고 제안하는 남편은 심지어 그 연애 편지를 혼자 쓰자니 멋쩍다며 같이 쓰자는 아내의 제안까지 수용한다. 그리하여 부부가 딕과 저녁식사를 한 날로부터 딱 일주일이지난 날부터 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내를 위해 실비에르가 딕의 전화기에 남긴 메시지가 몇 통째 아무 답도 듣지 못한 것처럼, 부부가 딕에게 쓰는 편지 역시 응답 없는 메아리가 되고 만다.

처음 만난 남자에게 광적인 사랑을 느낀 크리스는 이미 깨어난 내면의 새로운 자신이 다시 잠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힌다. 부부는 답신 한 장 없는 딕에게 자신들의 일에 대해, 결혼 생활에 대해, 또 현재 두 사람의 부부 관계상 세 번째 인물이 존재해도 된다는 묘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딕의 반응과 속내를 알아보기 위해 시작된 이 노력은 곧 특별한 예술 프로젝트에 관한 아이디어로 흘러가고, 부부는 예술과 문화 평론가인 딕에게 참여를 제안한다. 그러나 딕에게서는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한다. 혼자 보내는 편지, 혼자만의 마음에 지쳐버린 크리스는 결국 실비에르를 떠나 홀로 길을 떠난다. 이제 딕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크리스는, 종이 위에 고적이는 글로 상처 받은 마음을 스스로 위로한다. 그리고 딕을 향해 쏟아낸 마음은 오랫동안 지속될 남녀의 로맨틱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 사랑에 빠진 마음을 통해 새삼 깨달은 새로운 자신을 향한 사랑이었음을 깨닫는다.

영동하고 특이해 보이는 크리스의 이야기는 스스로 행복을 찾고 부당한 세상에 운명을 맡기는 대신 자신의 갈 길을 홀로 개척할 수 있다면 그 뿌리가 자기애일지언정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페미니스트의 모습을 대변한다. 1997년 첫 출간 시 파격적인 스토리로 큰 주목을 받았던 이 소설은 여성의 비참한 현실을 노골적으로 꼬집어내어 보여주며, 작가 자신의 삶과 많은 부분이 중첩되는 여주인공을 통해 억눌려 살던 한 여성이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며 회고록과 소설의 경계를 오간다.

<저자 소개>

크리스 크라우스(Chris Kraus)는 페미니스트 소설가이자 영화감독으로, 현재 스위스에 위치한 유럽대학원(European Graduate School)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Aliens and Anorexia』, 『Torpor』, 『Summer of Hate』, 『Video Green: Los Angeles Art and the Triumph of Nothingness』, 『Where Art Belongs』 등이 있다.

NON-FICTION

제목 : I CALL MYSELF A FEMINIST

가제 : 나는 페미니스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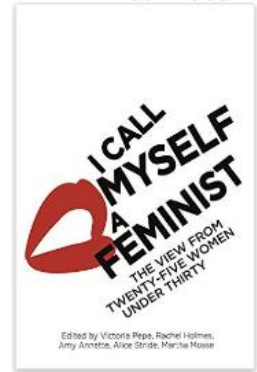
저자 : (편집) Victoria Pepe 외 4인

출판사: Virago

발행일: 2016년 6월 1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사회과학/페미니즘



- *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 칭하는 서른 살 미만, 25명의 여성에게 듣는 페미니즘의 의미
- * “신선하고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몹시 필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책” – 케이티 그랜트(Katie Grant), 「인디펜던트」
- * “젊은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이토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사실이 정말 흥미롭다.” – 「해럴드」

페미니즘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몸서리치는 사람들이 있다. 방송 프로그램이며 소셜 미디어에서 걸핏하면 들려오는 페미니스트 이야기에 ‘도가 지나쳤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들 이야기한다. 정말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금기처럼 여겨지는 상황을 그냥 두어야 할까? 이 책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스스로를 당당하게 페미니스트라 칭하는 여성 스물다섯 명에게 페미니즘이란 무엇이며, 왜 페미니스트가 되었는지 물어본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들의 각각의 이야기는 왜곡되고 과장되어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페미니즘의 의미를 바로잡고 ‘이제 그만 좀 하라’는 소리 대신,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페미니즘이 필요한 시급성의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성차별이 당연시되는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한, 페미니즘은 쌍둥이 형제처럼 계속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 않게 차별을 당하는 여성들은, 페미니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나 공기처럼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아직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여자가 학교에 간다는 이유로 총을 맞고, 남자가 요구하는 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산 채로 불태워진다. 결혼한 여성들은 아내와 엄마라는 타이틀 외에 다른 역할을 하려 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영국에서는 여성 다섯 명 중 한 명이 성폭력에 희생되지만 대다수의 피해자가 원인 제공을 했다고 되려 손가락질을 당한다. 그리고 여성들은 신체구조와 기능의 특성상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해 세금을 낸다. 여성의 신체는 노골적으로, 혹은 은근한 방식으로 정치화되고, 평가를 받고, 성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로 여겨진다. 이런 수많은 이유로 페미니즘은 필요하고, 그

필요성은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평등한 세상, 공평한 사회에서 여성들이 일원으로 인정 받고, 참여하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페미니즘의 역할이고, 그렇기에 이 책에 등장하는 스물다섯 명의 여성들은 페미니스트임을 숨기지 않는다.

정치, 공연, 예술, 언론계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서른 살 미만의 여성들은 언어에 그대로 담겨 있는 성차별적인 의미, 여성의 인체를 정치적 무기로 삼는 행위, 이슬라마바드에서 벌어진 염산 공격, 페미니즘과 종교의 관계 등을 이야기한다. 십대소녀도 포함된 이 다양한 저자들은 히잡과 여성 과학자에 대해, 뚱뚱한 페미니스트에 대해, 자아와 여성 참정권에 대한 각자의 확고한 생각을 유쾌하게 드러내며 페미니즘이 더 이상 여성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참신한 시각에서 제시한다.

<목차>

머리말 - 편집부

착한 여자아이가 다는 아니다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나요?

페미니스트로 살기까지

성질 급한 여자: 슈퍼우먼

일어나서 관여하라

왜 나는 페미니스트가 되었나

고요한 아우성

다분야에 속한 페미니스트를 위한 선언문

페미니스트 식 불평이 아닙니다: 발언권을 잃은 여성의 언어

나는 페미니스트다

우리 세대에 관한 이야기

(이하 생략)

<저자 소개>

레이첼 홀스(Rachel Holmes)는 작가로 최근 발표한 저서는 『Eleanor Marx: A Life』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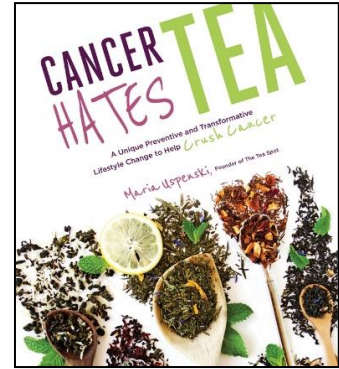
빅토리아 페페(Victoria Pepe)는 출판계에서 작가들을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다.

에이미 아넷(Amy Annette)은 코미디 프로듀서로 매년 서포크에서 개최되는 뮤직 페스티벌 ‘Latitude’에도 참여하고 있다

앨리스 스트라이드(Alice Stride)는 여성 가정폭력 방지 단체 위민스 에이드(Women's Aid)에서 일하고 있다.

마사 모스(Martha Mosse)는 프리랜서다.

제목 : CANCER HATES TEA
가제 : 암은 차를 싫어해
저자 : Maria Uspenski
출판사: Page Street Publishing
발행일: 2016년 10월 25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건강/차의 효력



- ★ 하루 다섯 잔, 1.2리터의 차로 암을 이겨내는 건강한 습관을 소개한 건강서
- ★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주제[암]에 독창적으로 접근한 책. 저자의 호기심과 결연한 의지가 개인적인 일을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만들었다.” – 차 소율리에, 『The Tea Book』의 저자 린다 게일라드(Linda Gaylard)

차를 마시면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 구체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차의 효능을 조사한 의학적 연구만 5천 편이 넘고 그 중 1천 편은 차와 암의 관계를 연구했다. 특히 녹차는 지난 10년간 항암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된 차로 꼽힌다. 미국 국립보건원도 녹차가 몇 가지 암을 물리치는 효과가 있으며 혈관이 불순물로 막히는 문제며 골다공증, 파킨슨병,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암 투병 생활 끝에, 의도치 않게 차의 이런 효과를 톡톡히 확인한 저자는 너무나 끔찍했던 암이라는 병마와의 싸움에서 든든한 무기가 되어 준 차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기로 결심했다. 유기농 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대표가 되어 언론매체에서도 주목할 만큼 큰 성공을 거둔 후, 이제 이 책을 통해 차와 함께 암을 이겨낸 과정과 차를 제대로 고르는 법, 제대로 마시는 법을 상세히 전한다.

저자는 평소 운동도 열심히 하고, 흡연도 하지 않고, 몸도 마음도 전성기라고 생각했던 시기에 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그로부터 오랜 고통의 시간이 지나 “암 징후가 전혀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기까지, 고된 여정을 마친 후에도 운 좋게 그 지긋지긋한 병에서 헤어났다고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고 그렇기에 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암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다. 그리하여 저자는 암세포가 어떻게 자라는지, 또 몸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인 기전 가운데 어떤 것이 암의 성장을 촉진하고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중단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차를 하루에 다섯 잔씩 마셔온 습관이 어마어마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의학적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년 간에 걸쳐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한 그 결과가 이 책에 모두 담겨있다.

책은 크게 4부로 나뉜다. 1부에서는 암과 차의 화학적인 특징부터 설명한다. 차 앞에 담긴 놀라

운 효과를 좀 더 정확히 알면 왜 차가 세포 수준에서, 또 면역계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2부에서는 실용적인 정보가 가득하다. 차를 만드는 법, 차를 마시는 적절한 시점과 분량, 차 마시는 일이 귀찮고 힘든 일이 아니라 일상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법이 소개된다. 3부에서는 차의 항암 작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면역력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효과에 대해 전한다. 마지막 4부에서는 차 고르는 법, 차를 이용한 레시피 등 차 마시는 일이 이미 일상이 된 사람들이 참고할 만한 더욱 상세한 정보가 제공된다.

암 투병 중인 사람이나 암 환자 가족들은 물론 건강한 삶을 살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쾌하고 알기 쉬운 설명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서다.

<목차>

머리말

1부. 왜 암은 차를 싫어할까

- 암에 관한 기본 정보: 원리

2부. 차로 암을 무찌르는 법

- 나만의 차를 훌쩍이는 습관
- 목숨이 달린 것처럼 마셔라
- 차로 건강을 거머쥐는 방법

3부. 암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더욱 강력한 방법

- 암은 건강한 심장을 싫어한다
- 암은 탄탄한 몸을 싫어한다
- 암은 명상 시간을 싫어한다
- 암은 파티를 싫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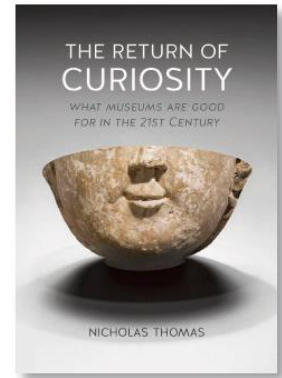
4부. 암에게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해라!

- 차 마실 시간
- 암 세포야, 이것 좀 마셔보렴
- 암 세포야, 이것 좀 먹어보렴

<저자 소개>

마리아 우스펜스키(Maria Uspenski)는 MIT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현재 콜로라도에서 유기농 차를 생산하는 업체 '티 스팟(Tea Spot)'을 설립하고 CEO를 맡고 있다. 누구나 쉽게 마실 수 있도록 고안한 차 제품을 발명하여 세 건의 특허를 취득했다. 「허핑턴 포스트」, 「덴버 포스트」 등 다양한 간행물과 TV 프로그램에 차 전문가, 성공한 기업가로 소개됐다.

제목 : THE RETURN OF CURIOSITY
가제 : 호기심의 귀환: 21세기 박물관의 역할
저자 : Nicholas Thomas
출판사: Reaktion Books
발행일: 2016년 7월 1일
분량 : 144쪽
장르 : 사회과학/박물관



- ★ 다양한 주제로 과거뿐만 아니라 혁신적 기술로 미래를 조망하는 21세기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
- ★ “박물관의 중요성과 21세기에 주목 받게 된 까닭을 저자의 높은 지성으로 광범위하게 분석한 책
... 박물관 소장품이 전시물에 국한되지 않고 예술적 해석과 연구, 자아 발견, 창의적 생각을 일
깨운다는 사실을 밝혔다.” - 영국 왕립미술원 대표, 찰스 소마레즈 스미스(Charles Saumarez
Smith)

스파이 박물관, 진공청소기 박물관, 국립 머스터드(겨자) 박물관부터 미술연구소, 뉴욕 현대미술관, LA 게티 센터에 이르기까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역사상 가장 다양한 박물관이 등장했다. 사람들의 삶에 관한 모든 면면이 주제별로 전시되고 소개되는 기분마저 든다. 먼 옛날의 유물을 보관하는 곳으로만 여겨졌던 박물관이 규모도, 범위도 모두 급격하게 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전세계적으로 등장한 미술, 과학, 역사 박물관과 전시품을 조사한 결과, 마음을 폭 놓고 지낼 수 없는 불안감과 혼란스러운 격동의 시대에 그 답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박물관은 사회를 지탱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고, 생각하게 한다. 잠자고 있던 호기심을 깨우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준다. 저자는 이처럼 박물관이 단순히 해묵은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며 큐레이터와 관람객, 역사, 문화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이 관계는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 보존하려고 애쓰는 것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안겨준다. 저자는 이 책에서 21세기에 등장한 각양각색의 박물관을 탐사하면서 박물관에 담긴 문화적 원동력을 분석하고, 인간과 자연계의 역사에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지 보여준다.

호기심은 지극히 개인적인 성격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이기도 하다. 새로운 것, 해보지 않은 일, 낯선 상황에 열띤 흥미를 느끼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건강하게 먹고 살면서 사회를 만들고 역사를 이어온 바탕이라 할 수 있다.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먹어보고,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보고, 처음 보는 장소를 가보려고 애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이미 대단한 작품이나 유물로 인정 받는 것을 보려고 박물관에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연히 발견한 전시물, 작품에서 생각지도 못한 것을 발견하거나, 뜻밖의 영감을 얻는 일이 많다. 저자는 바로 대다수가 인정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감동을 주고 새로운 아

이디어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라면, 전문가가 그 전시품에 부여하는 가치는 그리 중요치 않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박물관이라는 공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길은 정치인의 야망이나 정책적인 측면, 사회적, 경제적 동향에 따를 일이 아니며 ‘인간의 호기심을 되살리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를 위해 책의 첫 부분에서는 박물관을 다시 부흥시키려는 역사적인 노력들을 되짚어보며 그 필요성을 되새긴다. 이어 두 번째 부분에서는 박물관을 채우는 전시품들에게로 시선을 돌린다. 단순히 뭉뚱그린 물건이나 작품에서 벗어나, 낯설고 놀라운 조합으로 이루어진 흥미로운 주제가 박물관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박물관에 모인 전시품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한다. 인간의 현재와 과거를 이해할 수 있는 연결통로 역할을 하는지, 자연과 인간의 역사와 문화의 다양성, 인간의 창의성을 드러내는 작품인지가 중요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현 시대에 박물관에 조용히 부여된 역할, 또 앞으로 담당해야 하는 기능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접할 수 있다.

<목차>

머리말

1. 박물관의 상승세
2. 수단으로서의 박물관
3. 창의적 기술로서의 수집품
4. 결론

<저자 소개>

니콜라스 토머스(Nicholas Thomas)는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전시 큐레이터를 담당했다. 2006년부터 영국 캠브리지의 고고학·인류학 박물관 관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Tattoo: Bodies, Art and Exchange in the Pacific and Europe』 과 울프슨 히스토리 어워드(Wolfson History Prize)를 수상한 『The Pacific in the Age of Empire』 등이 있다.

제목: RULES FOR MODERN LIFE

가제: 현대인의 생활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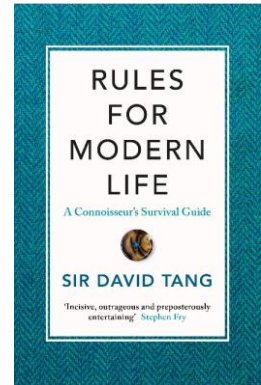
저자: David Tang

출판사: Portfolio Penguin

발행일: 2016년 11월 3일

분량: 224 페이지

장르: 에세이/현대사회의 에티켓



- *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고민상담가로 활약 중인 저자에게 듣는 애매한 현대사회 예의범절의 해답
- * 중국, 루마니아 판권 계약 체결
- * “예리하고, 굉장히 별나고, 엄청나게 재미있다. 스타일, 매너, 가십, 품위, 센스에 관한 저자의 글을 읽다 보면 어느 나라의 위대한 괴짜 군주와 마주 앉아 여행하는 기분이 든다. 그리고 그 여행이 제발 끝나지 않기를 바라게 된다.” – 스티븐 프라이(Stephen Fry)
- * “놀라운 유머 감각과 위트가 담긴 대중문화의 바이블” – 토미 힐피거(Tommy Hilfiger)

저녁 식사에 손님을 여럿 초대했는데, 한 사람이 밥 먹는 내내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신사라면 반바지와 샌들은 절대 신으면 안 되는 걸까? 비행기에 탔더니 옆자리에 줄리아 로버츠가 앉아 있다면,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올바른 예의범절일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애매한 상황에 놓여 고민에 빠질 때가 있다. 무엇이 교양 있는 현대인이 따라야 하는 방식인지 알쏭달쏭한 이례적인 일을 겪기도 한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에티켓, 영어 문법부터 재산 문제, 인테리어, 건축, 정원 가꾸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독자들의 각종 고민을 해결해주는 칼럼을 쓰고 있는 저자가 그 모든 의문을 해결해준다. 풍자와 유머가 가득한 칼럼으로 혼란만 가득한 현대사회에 무엇이 옳은 에티켓인지 명확히 이야기해온 전문가답게, 저자는 샤워 타월만 걸치고도 전문가다운 위엄을 잃지 않는 법은 물론 사냥 나갈 때 올바른 신발 고르는 법까지, 아무도 생각지 못한 고민까지 다 해결해준다.

책은 주제별로 아홉 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의류 산업을 운영하는 대표답게 첫 번째 주제는 옷 차림에 관한 조언이다. 나비넥타이를 꼭 매야 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의문부터 넥타이를 보관하는 요령, 더운 날씨에 예의를 갖추어 옷 입는 법, 결혼식과 장례식에 참석할 때 옷 색깔에 관한 고민, 갈색 구두와 검은색 구두의 미묘한 차이를 배울 수 있다. 무더운 여름 날, 사막 한 복판에서 카다피와 식사를 하면서 그의 쓰리피스 제복을 보고 놀란 저자의 경험담도 보너스로 들을 수 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스타일 살려서 여행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공항에서 보안요원이 벨트나 신발을 벗으라고 무례하게 강요할 때 대처하는 법은 물론 비행기 창가 자리와 복도 자리의 장단점, 숙박 시설을 고를 때 반드시 고려할 사항과 같은 일반적인 고민부터, 아침 조식 뷔페에서 점심 때 먹을 수 있게 도시락을 하나 만들어서 나오는 것에 대한 저자의 날카로운 견해를 들을 수 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집에 초대된 손님, 파티에서의 행동, 기본 에티켓, 집 꾸미기

와 인테리어 팀, 기술 관련, 비즈니스 관련 조연으로 이어진다.

담담하고 무심한 듯 이야기하는 말투 속에 요절복통 웃음을 터뜨리게 만드는 저자의 별난 유머 감각과 요즘 세태를 너무나 정확하게 반영한 뼈 있는 조연이 잘 버무려진 색다른 정보서다.

<목차>

웃차림에 관한 조언

스타일 살려 여행하기

관계

집에 초대할 손님들

저녁 파티

에티켓

집 꾸미기/인테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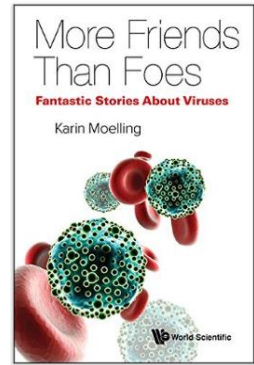
기술

비즈니스

<저자 소개>

데이빗 탕(David Tang)은 음식점 차이나 클럽(China Club)과 고급 의류 판매업체 상하이 탕(Shanghai Tang), 각종 전시, 워크숍, 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차이나 익스체인지(China Exchange), 인터넷 검색엔진과 각종 사이트에 나온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주는 서비스 업체 아이 코렉트(iCorrect) 등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매주 독자들의 고민에 답을 제시하는 고민 상담가로도 활약 중이다.

제목 : MORE FRIENDS THAN FOES
가제 : 적보다 친구: 놀라운 바이러스 이야기
저자 : Karin Moelling
출판사: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발행일: 2016년 12월 28일
분량 : 300 페이지
장르 : 과학/바이러스



- ★ 무조건 해롭다고만 여기는 바이러스에 관한 오해를 풀어주는 흥미로운 과학서
- ★ 취리히 대학교의 저명한 바이러스 학자 겸 암 연구자가 설명하는 바이러스의 모든 것

사람들은 바이러스라는 말만 들어도 즉각 불쾌감을 나타낸다. “없애버려!” “감염될라, 잘못하면 큰 병에 걸려.” 이런 반응이 늘 따라다닌다. 인플루엔자, 에이즈, 에볼라 등 이름만으로도 오싹해지는 무시무시한 병을 일으키는 종류도 있으니 충분히 그럴만하지만, 그 외 대다수의 바이러스는 악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인간을 해치는 기능보다 건강하고 풍족한 삶을 살게 도와주는 측면이 많다. 독일과 스위스에서 오랜 세월 바이러스와 암을 연구해온 저자는, 도무지 믿기 힘든 바이러스의 의외의 면에 대해 이 책에서 상세히 전한다.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서도 살지만 바다, 주변 환경, 동물, 식물, 세균 등 다양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간다. 날씨에도 영향을 주고, 몸을 뚱뚱하게 만들기도 하고, 각종 위협에도 꺾이지 않는 세균의 위세를 꺾어버리는 역할까지 한다. 무려 35억 년 전, 세포가 존재하지도 않을 때 생명이 처음 지구상에 등장한 시절부터 지구상에 존재한 것으로 알려진 바이러스는 그 역사만큼이나 놀랍고 이례적인 특징이 무궁무진하다. 하늘에 점점이 박힌 별보다 수적으로 훨씬 우세하고, 세균보다 몸집이 수백 배나 더 작은 종류도 있지만 열 배나 더 큰 ‘자이언트’ 바이러스도 있고, 극히 추운 지역에서 발굴한 토양에서는 3만 년이 지나도 죽지 않고 여전히 기능하는 바이러스가 발견되기도 한다. 저자는 사람들이 깊이 오해하고 있는 바이러스의 이 다채롭고 놀라운 특징들을 지금까지 진행해온 연구 결과와 접목하여 전한다. 사실로 밝혀진 내용과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철저히 구분하는 과학자다운 면모를 유지하면서, 저자는 바이러스가 인간의 역사 전반에 걸쳐 미친 어마어마한 영향과 그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본다.

바이러스학 분야에서는 이미 질병의 범위를 벗어나 바이러스의 긍정적인 요소를 집중 조명하는 방향으로 연구의 초점이 변화했다. 진화와 사회적 혁신을 일으키는 동력이자 생명의 근원이기도 한 바이러스는 심지어 인간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 바이러스는 어디에서 왔을까? 살아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어떤 원리로 우리에게 병을 일으킬까? 저자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한편,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과 인간의 자유 의지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 그리고 바이러스의 존재로 인해 인체의 면역 기능과 바이러스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 기전이 처음 생겨났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기 쉽게 전한다. 심지어 경제 위기를 일으키며 인간의 생존과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바이러스의 흥미로운 면모까지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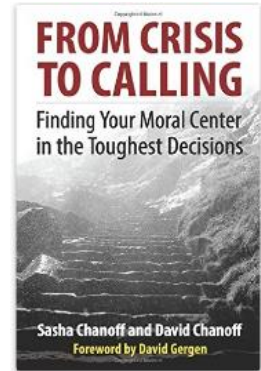
<목차>

1. 바이러스 -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2. 바이러스 - 병을 일으키는 과정
3. 레트로바이러스와 불멸성
4. 바이러스와 암
5. 우리를 병들게 하지 않는 바이러스
6. 바이러스 - 세포만큼이나 '거대한' 종류
7. 화석에 남은 바이러스
8. 바이러스 - 인류의 조상?
9.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 기전
10. 생존을 돕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오파지
11. 바이러스와 유전자 치료
12. 바이러스와 미래

<저자 소개>

카린 뮐링(Karin Moelling)은 취리히 대학교 교수 겸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분자유전학 연구소의 선임 초빙연구자로 활동 중이다. 또 독일 함부르크 하인리히 페테 연구소에서도 초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제목 : FROM CRISIS TO CALLING
가제 : 위기를 소명으로
저자 : Sasha Chanoff, David Chanoff
출판사: Berrett-Koehler Publishers
발행일: 2016년 6월 6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에세이/자기계발



- * 미국 공영라디오, ABC 월드뉴스, 뉴욕타임스, CNN에 소개된 난민구호단체를 세운 저자의 실제 경험과 기타 비즈니스, 정부, 군대, 비영리단체 리더들이 밝힌 가장 힘든 결정의 순간
- * 생사가 오가는 급박한 상황, 어느 쪽도 결과가 확실치 않은 위험한 순간 선택의 기준이 된 원칙

늘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도덕적인 기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에서 선택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있다. 한정된 자원과 여러 가지 복잡한 걸림돌을 헤치고 성과를 거두려면 분명 옳은 일도 포기해야 하는 때를 맞이하기도 한다. 특히 책임을 짊어진 리더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자주 경험하고, 대체로 이럴 때는 실용주의를 택해야 한다고들 생각한다. 전쟁 속에 내던져진 난민들을 구하기 위해 아프리카 대륙에서 활동하던 저자는 폭력에 물든 콩고에서 바로 그 난감한 상황을 맞았다. 동료들과 함께 처음 계획한 대로 난민들을 구출하던 중, 남편을 잃고 아이들과 숨어 있던 또 다른 집단을 발견한 것이다. 원래 구조 계획에는 없던 터라 무작정 이들을 구하려고 덤벼들자 처음 구하려 갔던 사람들마저 다 잃게 될 위험이 있었다. 콩고까지 건너가서 이루려 했던 과제 전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주어진 시간은 단 24시간. 저자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결단을 내려야 했다. 명확한 위험을 무릅쓰고 모두를 구할 것인지, 처음 계획대로 먼저 발견한 난민들만 구할 것인지. 이 심각한 갈등의 상황을 경험하고 돌아온 저자는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이 발견한 다섯 가지 원칙을 떠올린다. 저자의 잊지 못할 경험은 모스 팟캐스트(Moth Podcast)에서 <불가능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정부기관, 군대, 일반 산업체 등에서 활동 중인 리더 여덟 명을 인터뷰하고, 위기와 위험한 선택의 순간에 놓인 이야기들을 모아 이 책을 완성했다.

난대없는 위기에 봉착한 리더들은 재빨리 기지를 발휘하여 옳은 일과 그른 일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지체 없이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 순간이 나머지 삶 전체를 결정하기도 하고, 마치 신이 내린 시험과 같은 그 고비가 평생 의지하는 도덕적 기준으로 자리잡는다. 간디는 젊은 시절 낯선 남아프리카에서 변호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기차를 탔다가 인도사람이라는 이유로 내쫓기는 수모를 당했다. 그 굴욕적인 사건은 그가 저항운동을 이끄는 리더로 활약하는 불씨가 되었고, 결국 자국민들에게 독립을 안겨준 발판이 되었다. 엘레노어 루즈벨트는 1918년, 대서양을 건너 해외에 다녀온 남편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집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편지를 발견한다. 엘레노어의 일을 돕던 비서와 남편이 주고받은 러브레터가 한 묶음이나 들어 있었던 것이

다. 이미 아이 여섯에 루즈벨트는 미국 전체의 리더가 되기 직전인 상황에서, 엘레노어는 결혼 생활을 이대로 끝낼지, 모른 척 넘어가야 할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녀는 남편을 도와 대통령으로 만들어냈고, 대신 개인적인 관심을 인권 문제로 돌려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능력을 발휘했다.

수없이 많은 역사적인 리더들이 겪은 위기의 순간은 그들 각자의 삶은 물론 주변 사람들, 넓게는 세상을 바꾸는 힘을 발휘했다. 저자는 당장 필요로 하는 가치보다 조금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을 가꾸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해 유념해야 하는 원칙을 정리하여 이 책에서 제시한다. 리더가 절체절명의 순간 갈려 있던 관습에서 벗어나 스스로와 맞서고, 자신의 내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용기를 낼 때 기적이 이루어지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힘이 생겨난다. 위기의 순간을 견뎌낸 위대한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열정과 연민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도덕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5단계

1부. 콩고 난민 구출 작전

1. 준비하라
2. 균형 있는 가치
3. 용기를 발휘하라

2부. 도덕적인 의사결정

4. 공감하라
5.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6. 소명

맺음말.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구조 작전 그 이후

<저자 소개>

사샤 채노프(Sasha Chanoff)는 난민들을 구출하는 비영리단체 ‘레퓨지 포인트(RefugePoint)’의 설립자 겸 대표로, 인도주의 활동가에게 수여하는 찰스 브론프먼 상(Charles Bronfman Prize)과 하버드 공공리더십 센터에서 수여하는 글레이츠만 국제 활동가 상(Gleitsman International Activist Award)을 수상했다.

데이빗 채노프(David Chanoff)는 문학의 역사와 해외정책, 난민 문제, 교육, 종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에 글을 게재해 왔다. 『Vietnam War』, 『Holocaust』 등 여덟 권의 저서를 발표했다.